

통합 국립대 3곳 내달 출범... 교명·직제정비 등 '본격화'

교육부, 국무회의 설치령 개정 강원대·목포대·창원대 내달 개교 교직원 신분·학생 학적 경과조치 캠퍼스별 특성화, 지역산업 연계 "경쟁력 확보·지역소멸 대응"

강원대·국립목포대·국립창원대 등 통합 국립대 3곳이 오는 3월 새롭게 문을 연다.

이는 대학 통합에 따른 명칭·직제 정비와 학생·교직원 경과조치를 담은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강원대-국립강릉원주대, 국립목포대-전남도립대, 국립창원대-경남도립거창·남해대 등 통합대학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통합대학 출범에 맞춰 교명과 행정·학사 조지를 정비하고, 폐지되는 대학의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겼다.

먼저 강원대와 국립강릉원주대는 '강원대학교'로 통합돼 3월 1일 출범한다. 두 대학은 지역 간 격차가 큰 강원도 내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1도 1국립대' 혁신모형을 제안해 2023년 특성화 지방대학(구 글로벌대학)에 선정됐다. 이후 2024년 2월 통합 신청서를 제출했고, 교육부는 2025년 5월 통합을 승인했다.

통합 강원대는 1총장 체제 아래 4캠퍼스총장(법정부총장), 1부총장, 10처 1국으로 행정조직을 구성한다. 학사조직은 20학부 154학과, 일반·전문·특수대학원을 포함한 13개 대학원으로 운영된다. 춘천 캠퍼스는 정밀의료·바이오헬스·데이터산업 중심 교육·연구 거점, 강릉은 신소재·해양바이오·관광·동해계 스포츠 인재 양성 거점, 삼척은 액화수소·에이징테크·재난방재, 원주는 디지털헬스케

어·이모빌리티·스마트 통합돌봄 분야를 특성화한다.

국립목포대와 전남도립대는 '국립목포대학교'로 통합돼 같은 날 출범한다. 국립목포대는 신해양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해양특성화 대학 도약 전략의 하나로 통합을 추진해 2024년 특성화 지방대학에 선정됐으며, 2024년 12월 통합 신청 후 2025년 5월 승인됐다.

통합 국립목포대는 1총장 3부총장 체제에 6처 1국 1분부를 두고, 10단과대학 22학부 22학과, 4개 대학원을 운영한다. 공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4년제 일반학사와 2년제 전문학사를 병행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도립 캠퍼스는 4년제·대학원 중심 교육·연구 거점, 담양 캠퍼스는 글로벌 산업기능인력 양성 거점으로 운영되며, 목포·남양·영암·나주·장흥 캠퍼스는 남도문화예술, 스타트업, 해양·에너지·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기능을 집적한다.

국립창원대와 경남도립거창·남해대는 '국립창원대학교'로 통합 출범한다.

세 대학은 'K-방산·원전·스마트제조 연구중심대학' 혁신모형을 제안해 2024년 특성화 지방대학에 선정됐으며, 2024년 12월 통합 신청 후 2025년 5월 통합이 승인됐다.

통합 국립창원대는 1총장 4부총장 체제에 9처 1국으로 행정조직을 구성하고, 9단과대학 10학부 46학과 11전공, 8개 대학원을 운영한다. 학생의 전공 선택권과 진로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2~4년제를 동시에 운영하는 다중학사 체제를 도입한다. 창원 캠퍼스는 AI 융합 기반 방산·원전·자율 분야 고급 인재 양성, 거창은 방산·스마트제조·항노화 휴먼케어 실무 인재, 남해는 항공·해양 방산과 에너지안전, 관광융합 분야를 특성화한다.

최고진 교육부 장관은 "대학 통합은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전략"이라며 "새롭게 출범하는 통합대학들이 국가 균형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2026. 2. 23. (월) 15:00 인하대학교 Multiplex room (왼쪽부터) 대한항공 유종석 부사장, 인하대 조명우 총장, 한국피지컬AI협회 유태준 회장이 인하대 Physical AI 기반 인재양성 및 산학협력 강화 업무협약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인하대

인하대학교

피지컬AI 산학협력

대한항공과 인재양성 추진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최근(24) 대한항공, (사)한국피지컬AI협회와 인천 Physical AI 기반 인재양성 및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인하대와 대한항공, 한국피지컬AI협회는 이번 협약에 따라 ▲Physical AI 기술을 활용한 공동 연구 및 실증 프로젝트 기획·운영 ▲인재양성 프로그램 협력 ▲실습 중심 교육 모델 운영 등에 힘을 예정이다.

인하대는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인천 지역이 피지컬 AI 실증, 인재양성의 거점으로 자리 잡고 교육·연구·산업이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종석 대한항공 부사장은 "이번 협약이 피지컬 AI 기술을 실제 산업 환경에 적용하고, 이를 주도할 핵심 인재를 함께 양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고교교육 기여대학 92곳 지원 575억 투입·대입공정성 강화

교육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대응 2028 대입개편 맞춰 전형 연계 확대 학생부·수능 위주 전형 89% 유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2028 대입개편을 앞두고 교육부가 전국 92개 대학에 575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교육부(장관 최고진)는 24일 '202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대입전형과 고등학교 교육과정 간 연계를 강화하고, 대입전형 운영의 공정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2014년부터 추진돼 왔다.

올해는 4주기(2025~2026년, 2개년) 사업의 2차 연도로, 지난해 선정된 전국 92개 대학을 대상으로 총 575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교육부는 재정 지원과 함께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해 우수 성과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참여 대학의 학생부·수능 위주 전형 비율은 2025학년도 89.0%, 2026학년도 88.8%, 2027학년도 89.3%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대학은 2026~2028학년도에 수능 위주 전형을 30% 이상 운영해야 하며, 일부 대학은 40% 이상을 충족해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026년 사업의 전체 규모는 사업관리비 10억원을 포함해 총 585억3300

만원이다. 이 가운데 기본사업에는 92개 대학에 약 537억원이 지원되며, 대학당 평균 지원액은 약 5억8000만원 수준이다. 대학별 특성에 맞는 선도 모델 발굴을 위한 자율공모사업에는 16개 대학이 선정돼 약 38억원이 투입되며, 대학당 평균 2억4000만원이 지원된다.

사업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1년간이다.

지원 대상 비용은 입학사정관 인건비와 교육·훈련 경비, 대입전형 연구비, 고교 및 시도교육청 협력 활동 운영비, 사업 성과 확산을 위한 비용 등이다.

아울러 사업 참여 대학들이 수행한 입학전형 개선 연구 결과는 다른 대학들이 2028학년도 입학전형을 준비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각 대학 누리집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올해는 대학별로 고등학교의 새로운 평가 체제를 반영한 '2028학년도 대학 입학전형시행계획'을 발표하는 해"라며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공교육만으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입전형이 마련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 초등생 전원 '안심벨' 보급

신청 학교 재학생 전원 지급 '안심경광등' 5000개 보급

서울시가 다가오는 새 학기부터 서울시 모든 초등학생에게 '초등안심벨'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다양한 위험상황과 불안으로부터 시민들을 지키기 위한 '일상안심 사업 3종'을 올해 확대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 일상안심 사업 3종'은 ▲내 아이 지키는 '초등안심벨'(아동)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청소년·일반시민) ▲내 가게 지키는 '안심경광등'(1인 자영업자)이다.

'초등안심벨'은 각 학교에서 서울시에 신청하면, 신청한 학교 재학생 전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시가 학교에 전

량 지원하는 방식으로 배부할 예정으로, 학생이나 학부모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서울시는 안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1학년 신입생부터 우선 지급할 계획으로, 새 학기 시작과 동시에 배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2월 말까지 신청 학교로 배송을 완료할 예정이다.

'초등안심벨'은 어린이가 일상적으로 휴대할 수 있도록 키링(열쇠고리) 형태로 제작됐다.

휴대용 안심벨인 '안심헬프미'는 안전에 취약한 서울시민 및 서울 생활권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5만 개를, 1인 점포 등 나홀로 사장님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심경광등'은 상반기 5000개를 각각 지원한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10 | 해질 / 18:21

2월 25일(수) 음력: 1월 9일

수도권 날씨 -1 ~ 15°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5/15, 동두천 -4/15, 가평 -4/14, 파주 -4/14, 서울 -1/15, 양평 -4/16, 수원 -1/15, 용인 -1/15, 평택 -4/15, 인천 0/12, 백령도 1/8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美 이란 공습 임박? "26일 제네바 회담 분수령"
▲"트럼프 무역확장법 232조로 배터리·화학제품 관세 추가 검토" /사진 뉴스시스

▲러우전쟁 4년...사상자 180만명·영토 19.4%·국제 지원 13% ↓
▲中, '사실상 기준금리' LPR 1년물 3%... 9개월째 동결

▲中왕이, 미국 겨냥 "인권 빌미 타국 내정 간섭 말라"
▲중일 냉각 속 중, '시진핑 축전' 또 안보내... 다카이치 재선에도 무반응